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9



2025년 골든클럽 피크닉: 화창한 날, 즐거운 추억!

2025년 6월 12일 Alpine Pavillion에서 80명 정도의 회원들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클럽 피크닉을 가졌다. 날씨는 청명하고 여름이지만 덥지 않아 야외활동을 하기에 쾌적하였다. Parking장에서 Fee를 납부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새로운 App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IT강좌 같은 시간도 가졌다.

집행부의 잘못된 장소공지로 인하여 엉뚱한 장소에 갔다가 다시 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고 가진 여흥시간에는 새로운 Game과 빙고를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귀한 시간을 마감하였는데, 다음

피크닉을 Alpine Pavillion을 하게 되면 순조로운 모임의 진행을 위하여 Parking Fee가 무료인 수요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홍 회장님의 몇 번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참석하게 된 정준영(문리 67) 동문 부부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한국에서 방문한 성덕수(상대 67) 동문의 깜짝 방문이 있었으며, 젊은 피인 박수형(법대 99) 동문이 참석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창길(자연 85) 동문이 찬조 출연하였다.

Longwood Gardens 여행 (7월 31일)



🕒 **일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아래 세부 일정 참조)

💰 **참가비:** \$50 (교통편 - 49인승 버스대절, 입장료, 점심 및 간식 제공)

☎ **등록:** 이영범 (973-464-9595)

일정

- 오전 8시 플러싱 한양마트 출발
- 오전 8시 50분; 포트리 한남체인 출발
- 11시 20분 Longwood Gardens 도착 ; (약120 miles, 운전시간 2시간 30분)
- 11시 30분 -12시; Guide Tour by Longwood Gardens (Conservatory Tour 예상)
- A summer highlight with giant waterlilies in full bloom
- 오후 12시 - 1시 폭포와 산책로가 있는 Hillside Garden에 있는 Picnic Area 에서 Carillon 소리를 들으며 점심을 드시며 원하시는 분들은 20미터 높이의 Chimes Tower에 올라가 공원을 내려다 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 1시-1시 45분 - Fountain Performances 관람 & Topiary Garden, 주위의 Topiary Garden, featuring whimsical, sculpted evergreen trees 둘러 보고.
- 1시 45분 - 2시 30분 - Italian Water Garden & Flower Garden Walk ,Peirce's Woods Walk
- 2시45분 Longwood Gardens 출발
- 5시 15분 한남 체인 도착
- 6시 30분 플러싱 한양마트 도착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거나 우천으로 인하여 골프 회동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참여도 다소 저조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작년에 방문했던 Westchester의 명문 골프장인 Hudson Hill로 잡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스는 길이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홀들과 장애물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곳이고, 이어서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만찬도 아주 훌륭하여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주위의 친구분들도 초청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일시:** 2025년 7월24일 (목) 낮 11시 (Shotgun Start)

📍 **장소:** Hudson Hills Golf \$
400 Croton Dam Rd, Ossining, NY 10562

회비: \$120

☎ **등록:** 김병순 사무총장 (703-407-4928)

새 회원을 환영합니다.

이름: 정준영 Joon Y. Chung
 배우자: 남궁예
 단과대: 문리67
 주소: 188 Wales Ave, River Edge, 07661
 Cell: 201-218-2782
 email: yeachung@gmail.com





6월 28일 뉴저지 가연에서 제47대 뉴욕동창회 정기총회및 이사회가 열렸으며,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 회칙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차기회장으로 김병순 부회장이 선출되고, 차기 이사장으로 우규환 동문이 선출되었다.

최한용 (농대58) 회원의 85세 생신을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광현 미대'57 동문은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참된장로교회 (1500여명 교인, 박순진 담임목사 시무)에서 6월8일 명예 장로로 추대됐다. 사진은 추대패를 받은 김동문의 가족들과 박순진 담임목사와 박주현 교구담당목사님.



6월 18일 서울공대 김영오학장의 방문에 맞추어 공대 젊은 동문 15명이 맨하탄 큰집에서 자리를 같이 했고, 김병순 사무총장이 함께 하면서 후원금 \$500을 전달하고 유대를 돈독하게 하였다.

이흥빈 선배님 (서울대 의대 57학번) 인터뷰:
정형외과 의사에서 와인 전문가로, 삶의 깊이를 더하다



지난 6월 17일, 골든클럽 회원들과의 정겨운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흥빈 선배님 (서울대 의대 57학번)****을 모시고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형외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시고, 은퇴 후에는 와인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신 선배님의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배님의 다채로운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고난과 성취의 정형외과 의사 생활
 이흥빈 선배님은 1970년대 초,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셨습니다. 당시 한국에서의 의사 경력은 미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기에, 선배님은 미시간주 로얄 오크에서 인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선배님은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것은 한국인에게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의료 분야였기에 선배님의 노력과 성취는 더욱 빛났습니다.

킹스턴 뉴욕에 개업하신 후, 선배님은 주로 백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삶은 수술과 응급 호출로 밤낮없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선배님은 지역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의사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의료 외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선배님의 말씀에서는 환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66세에 정형외과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평생을 바친 직업에 대한 후련함과 함께 아쉬움도 내비치셨습니다.

은퇴 후의 새로운 열정, 와인 전문가로의 변신
 의사 생활을 은퇴하신 후, 이흥빈 선배님은 와인에 대한 오랜 애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뉴욕의 와인 대학에서 2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와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셨고, 직접 와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와인 전문가로서의 삶을 즐기셨습니다. "평생 와인을 즐겼으니,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와인 공부는 선배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 와이너리들을 직접 방문하며 와인에 대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와인이 단순한 술이 아닌 하나의 학문이자 문화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배님은 와인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와인 라이선스 취득 과정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유통 과정을 설명하시며 사업의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비록 와인 스토어는 현재 운영하지 않지만, 와인을 통해 얻은 지적 만족감과 새로운 경험들은 선배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와인을 쉽게 설명해주며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는 말씀에서는 와인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삶의 깊은 통찰과 후배들을 향한 조언

이흥빈 선배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5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시며, 당시 서울대 동창회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위로가 없었던 것에 대한 깊은 서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동창회를 자퇴하게 된 사연을 밝히시며, "이웃 노인네가 다쳐도 이렇게까지 무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간적인 도리와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선배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은 남자가 먼저 숙이고 양보해야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선배님의 말씀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인생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와인에 대한 열정처럼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면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셨습니다.

이흥빈 선배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다음번에 선배님을 모시고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선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뉴욕 골든클럽 피크닉을 참석하고서>

■ 박수형 (법대99)



안녕하십니까? 뉴욕 골든클럽 선배님들. 저는 법대 99학번 박수형이라 합니다. 이번에 법대 55학번 정해민 선배님의 권유로 뉴욕 골든클럽 야유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 짧게나마 그 소감을 올리고자 합니다.

뉴욕 동창회 권정덕 이사장님, 김정필 회장님, 김병순 부회장님 외에는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인데 따듯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법대 59학번 송학린 선배님이 일일이 모든 선배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까마득한 99학번 후배인데 선배님들이 환대해주셔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공대 49학번 대선배님을 뵙고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연세에 비하여 너무나도 정정하시고 멀리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말로 표현 못할 강한 에너지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알파인 파빌리온이라는 장소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허드슨강과 맨하탄이 바로 보이는 이렇게 근사한 장소를 전세 내어 피크닉을 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배님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데 모두들 센스가 대단하셨습니다. 감히 끼어서 거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달변들이셨습니다. 선배님들에게 삶의 지혜와 미국살이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게 되어 미국 생활을 갖 시작한 새내기로서 너무나도 값진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번 피크닉 행사 진행이 매끄럽고 훌륭했습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고 정갈한 맛도 좋았습니다. 간식으로 준비하신 굴도 초여름 날씨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진행하신 빙고, 초성 맞추기 낱말 퀴즈, 속담 퀴즈, 반주만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 맞추기 게임 등 다 재미있었습니다. 서울대 동문회답게 모두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신 와중에 점심시간에 일부러 짬을 내어 참석하여주신 80년대 학번 선배님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젊은 선후배님들도 많이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랜 기간 고생하여 만들고 유지한 서울대 뉴욕 동문회가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젊은 동문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어색했습니다. 감히 제가 끼어도 되는 자리일까 걱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색해 하시고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딱 한번만 참여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황금기, 재능 기부로 빛내세요!--

노년에 재능 기부를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연륜이 모두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나누고 싶은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교육 및 학습 지도 분야

- 학습 지도 (국어, 수학, 영어, 한자 등): 방과 후 학습 지도,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등
- 취미/특기 지도: 서예, 그림,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동화 구연, 종이접기, 손뜨개질, 퀼트 등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자신의 취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 생활 기술 교육: 요리, 바느질, 간단한 수리(집수리, 전자제품 수리 등), 운전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교육: 컴퓨터 활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교육.



2. 상담 및 멘토링 분야

- 인생 상담: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직업, 대인관계, 노년 생활 등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노인 상담: 동년배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노노케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
- 법률/세무/부동산 상담: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려운 법률, 세무,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재무 설계 멘토링: 은퇴 후 자산 관리나 재무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3. 문화 예술 및 공연 분야

- 공연 활동: 음악 (합창, 악기 연주), 연극, 춤 (전통춤, 현대무용) 등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요양원, 복지관, 지역 행사 등에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 문화 해설/가이드: 박물관, 미술관, 고궁, 문화 유적지 등에서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해주거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술/공예 지도: 그림, 도예, 캘리그래피, 전통 공예 등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4. 행정 지원 및 전문 분야

- 사무 행정 지원: 문서 작성, 자료 정리, 회계 처리 등 행정 업무에 능숙하다면 복지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사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번역/통역: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번역이나 통역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사진 촬영, 영상 편집, 글쓰기 등에 능숙하다면 기관의 홍보물 제작이나 소식지 편집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IT 전문가: 웹사이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IT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단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찰 퇴직자: '시니어 폴리스'와 같이 교통 안전, 범죄 예방, 방법 등의 활동으로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생활 지원 및 돌봄 분야

- 취약 계층 돌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말벗, 병원 동행 등의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시설 봉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 활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정화 활동: 공원, 하천 등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재능기부처

노년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연륜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 귀한 자산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누는 재능 기부는 삶에 새로운 활력과 깊은 보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욕 지역 재능 기부처

뉴욕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된 기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뉴욕시 노인국 (NYC Aging): 뉴욕시 노인국은 60세 이상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Friendly Visiting Program을 통해 외로운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지역 **경로회관 (Older Adult Centers, OAC)**에서 컴퓨터, 외국어, 공예 등 자신의 재능으로 감사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nyc.gov/aging에서 확인하거나 212-AGING-NY (212-244-6469)로 문의하세요.

New York Cares (뉴욕 케어스): 뉴욕의 대표적인 대규모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어린이 멘토링, 교육, 환경 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재능에 맞는 활동을 찾기 용이합니다. 웹사이트(www.newyorkcares.org)를 방문해보세요.

DOROT: 노인들과의 교류 및 지원에 특화된 단체입니다. 노인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화하는 친구 봉사는 물론, 기술 교육 (Tech Coaching)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재능 기부 기회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dorotusa.org)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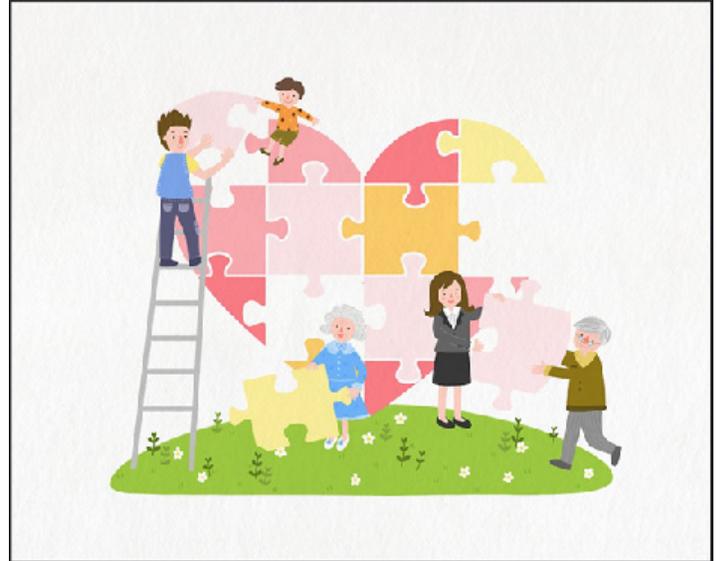
NAPCA SCSEP (노인 지역 사회 봉사 취업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재능 기부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 웹사이트(www.napca.org/ko/employmentprograms)를 확인해보세요.

뉴저지 지역 재능 기부처

뉴저지에도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된 기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능 기부 기회가 있습니다.

뉴저지 주 및 카운티 자원봉사 센터: 뉴저지 주 국무부 웹사이트(<https://www.nj.gov/state/volunteer-centers.shtml>)에서 각 카운티별 자원봉사 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한다면 Volunteer Center of Bergen County(<https://www.bergenvolunteers.org/>)에서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봉사자를 연결해줍니다.

Jersey Cares: 뉴저지 주에 특화된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식량 불안정, 환경 보호, 교육 접근성 등 뉴저지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www.jerseycares.org)를 확인해보세요.



AWCA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뉴저지 티벡에 위치한 한인 복지기관으로, 노인 활동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재능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웹사이트(<https://awcanj.org/>)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Brandman Senior Care Center: 노인 돌봄과 관련된 방문 봉사, 간병인 지원, 사무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어 페이지도 지원합니다. 웹사이트(<https://brandmanseniorcare.org/ko/volunteer/>)에서 확인해보세요.
각 카운티별 노인국 (County Offices on Aging): 뉴저지 각 카운티에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재능 기부 기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어떻게 시작할까?

자신에게 맞는 분야 찾기: 요리, 외국어, 컴퓨터, 음악, 상담, 글쓰기 등 자신이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VolunteerMatch (www.volunteermatch.org)와 같은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을 검색하여 다양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 지역 병원, 도서관, 학교, 종교 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등 관심 있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재능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능 기부는 받는 이에게 큰 기쁨을, 나누는 이에게는 더 큰 행복과 삶의 의미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재능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황금기를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회원 명단 (110명 / 2025-6-25)

강교숙	김영덕	손갑수	윤재욱	임도혁	한민우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임호준	한영수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윤현남	전문준	한용오
고애자	김익성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태진/
곽선섭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용희
권문웅	김창수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허용웅
권정덕/	김충정	송웅길/	이상원	조승자	허유선
홍선경	김치갑	송현자	이승준	정해민	홍정표
홍선경	김태일	송학린	이 준	조상근	홍종만/
권태전	김한중	송혜순	이대영	주상선	홍예경
금영천	김현중	신두식	이대영	주재양	
김광수	노승만	신진식	이영범	진봉일	
김광현	노용면	신응남	이용대	천병수/	
김동건	민준기	오순문	이위곤	천종화	
김문경	박기환	오용호	이전구	최병우	
김문언	박상원	오인석	이종대	최준희	
김병순	박준구	우규환	이종석	최진영	
김상만	박희병	윤무영	이준행	최한용	
김승호	배상규	윤선구	이행순	최학주	
	성기로	윤상영	이흥빈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70명 / \$7000 / 2025-6-25

강교숙	김익성	송웅길	이승준	조상근
강에드	김정필	송현자	이영범	주상선
계동휘	김충정	송학린	이위곤	천병수
곽선섭	김한중	신두식	이전구	천종화
권문웅	김현중	신진식	이종대	최병우
권정덕	민준기	이상원	이종석	최준희
홍선경	박기환	오순문	이흥빈	최한용
금영천	박준구	오용호	이행순	한민우
김광현	박희병	우규환	임도혁	한용오
김문언	배상규	윤상영	임호준	한태진
김병순	성기로	윤선구	전문준	안용희
김상만	손갑수	이대영	정수일	홍정표
김승호	손경택	이강홍	정준영	홍종만
김영만	송근숙	이상무	정해민	홍예경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6명 / \$12,800 2025-6-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영범 300	정해민 25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권정덕 500	손경택 1500	이전구 1000	최한용 500
금영천 300	신진식 3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김상만 1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김옥수 200	이강홍 500	임호준 300	
김한중 300	이상원 100	전문준 5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정준영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5-5-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6명참가)
	24(목)	골프대회 - Sunset Valley (28명참가)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29(목)	Metropolitan Museum 방문
6월	12(목)	Family Picnic (Alpine Pavillion)
	26(목)	골프대회 - Walkil Golf Club
7월	24(목)	골프대회 - Hundson Hills
	31(목)	Longwood Garden 방문
8월	21(목)	골프대회
9월	11(목)	골프대회
10월	9(목)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16(목)	하이킹
	30(목)	골프대회
12월	6(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교숙 (간호73) 신두식 (의대58)
- 권정덕 (의대58) 이용대 (약대63)
- 김병순 (사회82) 이종대 (약대65)
- 김영만 (상대59) 이흥빈 (의대57)
- 김충정 (상대64) 정수일 (대학원)
- 김태일 (공대68) 주상선 (공대73)
- 송혜순 (사대62) 천병수(공대7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